



# 성동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청장에게 바란다』 답변(그들만의 리그: 명장프로젝트 (중소기업지원센터))

- 번 호 : 1800
- 상담인명 : 박형욱
- 처리기한 : 2015. 11. 21. (등록일자 : 2015 . 11 .14 .)
- 민원유형 : 구정참고형 (기시행)
- 제 목 : 그들만의 리그: 명장프로젝트(중소기업지원센터)
- 내 용 :

명장프로젝트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1월 12일 명장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문의를 했는데 장OO담당자는 이미 이를 전인 10일로 마감이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제화 기술자들에게 광고가 미흡했다는 점과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지와 접수가 열흘이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급하게 만들어내고 열은 마무리 지으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해당팀장님은 명장프로젝트 공고와 접수기간이 열흘 밖에 안되는 이유가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도록 정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열흘 이상 공지하고 접수를 받으면 징계가 있는 건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자신의 업무가 많아지니 본인 편의를 위해서 그러신건 아닌지요. 이번 명장프로젝트에 과연 몇명의 지원자들이 신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몇 명이 신청했는지요.

게다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현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설명이

서류에 명확하지 않아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꽤나 혼란스러워합니다. 본인은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니까 그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데

모든 공지나 매뉴얼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해야합니다. 충분히 공지하고 어떻게 서류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현장평가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말입니다.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알고도 안했다면 나태한건가요. 아니면 아예 필요하다고도 못 느끼셨다면 그건 더 심각합니다.

수제화 기술자 중에는 공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기술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의 탁상 공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게다가 정보를 아는

사람만 유리하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밥 한끼 사주고 술 한번 사주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는 있겠지요. 실력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정말 실력있는 명장을 가리는 게 주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다르게 진행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몰라서 못하면 그건 네 잘못이라는 태도는 "끼리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알려주고 혜택받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게

됩니다. 비리로 발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제화명장"을 뽑는다면, 구두장이인 명장이라는 호칭에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상품력이 있는 구두 한결레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으로 패턴/갑피부분과 라스트/저부부분으로

나누어 한쪽 기능만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명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기능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구두업계에서는 구두를 잘 모르는 이들이 뽑는 명장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뒤에서 실소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대학 박사님만 모시면 공신력이 생기는 건가요? 40년 넘는 구두장인들의 현장 실력을 학교에서 교편잡던 먹물 선생님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모기업 사장님처럼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장인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구두 치수가 기성 사이즈가 아닌데다가 칼발인 사람의 발에 맞추어 구두골(라스트)을 깔고 패턴을 내고 재단해서 갑피와 저부를 다하고, 구두 신은 사람에게 정말 편하고 예쁘네요...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지원센터 등에서 수료만 하고 끝나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실제 견습생을 선생이 되기까지 도제로 가르쳐 수제화 기술자라는 직업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구요.

평가의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가운데 명장을 뽑으려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명장의 실력은 안되어도 명장이라는 타이틀로 고객을 속이거나 강사가 되어서 어설픈 학생을 가르치거나 할 수 있죠. 그것을 정무기관이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두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여러가지 지원센터들, 성동구중소기업지원센터, 패션지원센터 등등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산업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일을 벌이게 되면 오히려 세금만 낭비하고 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상근 직업인들만 양산하는 것 외에 구두업계가 열악해져가는 현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제화노조 모임에서 지원센터들의 실태와 상황을 설문조사하고 집단민원이나 진정서를 넣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화업계에 도움이 안되는데 왜 세금낭비하는 것이죠.

차라리 퇴직금도 못 받고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어 열악한 제화 기술자들의 복지에 세금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계신 담당팀장님, 나이가 많은 민원인이 "저는 안되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면 적어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힘빠지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라거나, 서약서에 "짜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라는... 이런 말투는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민망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저인데, 오히려 저의 아버지께 무례하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제게 "전화통화 녹음했나요? 아까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그거 녹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곤란해 집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황당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태도와 말투가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말입니다. 우리를 센터로 오라고 한것도 결국에는 민원을 받아주는 듯한 제스처만 취하고 불만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불쾌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그러실까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그리고 명장프로젝트의 장OO담당자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어쩔사리 통화가 되었을 때, 제게 대뜸 "뭘 때문에 그러시죠?"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원인을 "진상고객"으로 대하니 대화자체가 시작부터 어긋나버렸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제가 잘 못 이해한 거에 대해서 황당해하며 본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다른 민원인들에게 받은 짜증을 제게 표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센터에 갔을 때도, 다른 직원들에게 이미 말했는지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더군요. "아, 저 진상 왔구만."이라는 표정과 차가운 태도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OO담당자는 당연히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본인이 진상고객에게 갑질당한 피해자인가요? 실제로는 제게 짜증은 있는데로 다 내시고, 제 말을 듣기도 전에 팀장님에게 얘기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돌려버리신건 장OO담당자입니다.

일반적인 기본 매너조차 보기 힘들어서... 혹시 성동구에서 행정위탁으로 일하고 계셔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하는 일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선상으로 여러곳으로부터 불만전화를 받은 후에 저랑 대화해서 서로 감정이 상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글을 올린 후, 일요일 오후에 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 월요일 아침에 이글로 인해 곤란하시실까봐 그러신건지 ... 글을 내려달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팀장님,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희도 몇 일동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저희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할아버지이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구두 만드시며 저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다해서 무시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팀장님, 연세가 쉰넷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팀장님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거랑 이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글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건 시정조치 해주시고 잘못된 게 없으시다면 공개해서 증명해보이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박OO님의 부친께서 오랫동안 구두장인의 길을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수동 수제화명장 선정과 관련, 마음이 상하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성수동 수제화명장 선정 모집 사업은 성수지역의 전통산업인 수제화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2013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성동구 수제화장인을 대상으로 10.30. ~ 11.10.까지 12일 간 우리 구청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제화 집적지인 성수역과 연무장길 등을 중심으로 모집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최종접수 결과 총 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명장 선정 등과 관련, 공고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경우 보통 7일에서 금액이 큰 경우 30일까지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OO님의 메일을 읽고 명장선정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연장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수제화 명장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명장은 성동구의 수제화 완제품 생산 공장 대표, 성동구 소재 수제화협동조합 대표, 30년이상 수제화 제조경력자 중 성동구에서 수제화를 제작하는 기능인 3명 이상 및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제화명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명장의 선정조건은 20년이상 수제화 분야에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성동구에서 5년이상 구두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기술수준 및 품성이 남달라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자입니다

아울러, 수제화 명장선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박OO님의 말씀처럼 위원 위촉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는 제화업계 관계자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평가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장인정신과 기술력, 동종종사자들의 귀감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팀장과 직원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 박OO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 월 16 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처리부서 : ☎2286-7783 주무관 장달덕 기업활성화팀장 차영수 지역경제과장 김광호

★기업활성화팀장 차영수 지역경제과장 김광호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부구청장 11/18 이비오

협조자 구민고충민원실장 신한창 창조경제추진단장 임채선

시행 지역경제과-36099 ( ) 접수 (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7782 /전송 02-2286-6250 / chays319@sd.go.kr / 대시민공개  
궁금할 때,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